

2019년 6월 1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기대로 상승 트럼프, “G20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나 무역협상 타결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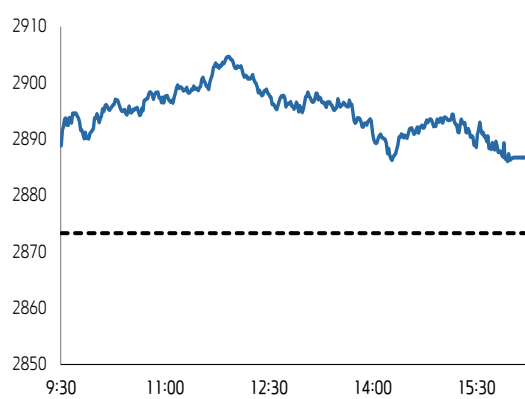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해결 및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기대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등으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 했으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주 강세도 특징. 다만,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장 후반 상승폭 축소(다우 +0.30%, 나스닥 +1.05%, S&P500 +0.47%, 러셀 2000 +0.61%)

미 증시는 자동차, 금융, 반도체 업종이 상승한 점이 특징.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 협상에 타결을 하자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애플과 반도체 업종 상승 요인. 특히 아나로그디바이스(+5.82%)에 대해 골드만삭스가 매도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많았음. 골드만삭스는 아나로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수정한다고 언급하며 ADI 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 했다고 발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회사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화웨이 문제는 무역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점도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며 여기에서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 이라고 주장한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이러한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높아지자 골드만삭스등 시장 일부에서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지난 4 일 파월 의장도 “무역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었기에 FOMC(19 일) 이전까지는 미국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이슈가 약화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99.49	+1.31	홍콩항셱	27,578.64	+2.27
KOSDAQ	721.14	+0.64	영국	7,375.54	+0.59
DOW	26,062.68	+0.30	독일	12,045.38	+0.77
NASDAQ	7,823.17	+1.05	프랑스	5,382.50	+0.34
S&P 500	2,886.73	+0.47	스페인	9,294.10	+0.63
상하이종합	2,852.13	+0.86	그리스	842.76	+3.28
일본	21,134.42	+1.20	이탈리아	20,484.99	+0.6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자동차, 반도체, 금융주 강세

멕시코와의 관세 협상이 해결되자 GM(+1.47%), 포드(+0.61%)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프리미엄 맥주 회사인 콘스텔레이션 브랜드(+1.89%) 같은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상승 했다. 대체 육류 회사인 비온드 미트(+21.24%)는 오늘도 예상보다 강한 판매 전망에 힘입어 급등했으나, 맥도날드(-2.03%), 움브랜드(-0.39%)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부진했다. 세일즈포스(-5.26%)는 빅데이터 회사인 태블로 소프트웨어(+33.70%)를 153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비용부담으로 급락했다. 화학업체인 LyondellBasell(+5.59%)는 3,700만주 자사주 매입 발표로 급등 했다. AMD(+2.53%)은 모건스탠리가 이전의 신중한 전망이 잘못되었다고 언급하며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마이크론(+2.79%), 애플(+1.28%), 스카이웍(+4.21%), 퀴보(+1.74%), 쉘컴(+2.69%), ADI(+5.82%)을 비롯해 원리조트(+5.09%), MGM(+4.34%) 등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기대감 및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상승 했다. 원리조트와 MGM, ADI의 경우는 투자의견 상향 조정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BOA(+1.96%), JPM(+1.08%)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으로 강세를 보였다. 아마존(+3.14%)은 저신용자용 카드를 내놓는다고 발표하자 향후 매출 증가 기대속에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62%	대형 가치주 ETF(IVE)	+0.50%
에너지섹터 ETF(OIH)	+0.15%	중형 가치주 ETF(IWS)	+0.19%
소매업체 ETF(XRT)	+0.58%	소형 가치주 ETF(IWN)	+0.51%
금융섹터 ETF(XLF)	+0.85%	대형 성장주 ETF(VUG)	+0.61%
기술섹터 ETF(XLK)	+1.02%	중형 성장주 ETF(IWP)	+0.9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8%	소형 성장주 ETF(IWO)	+0.71%
인터넷업체 ETF(FDN)	+0.60%	배당주 ETF(DVY)	-0.02%
리츠업체 ETF(XLRE)	-0.3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60%
주택건설업체 ETF(XHB)	+0.4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9%
바이오섹터 ETF(IBB)	-0.60%	미국 국채 ETF(IEF)	-0.50%
헬스케어 ETF(XLV)	+0.30%	하이일드 ETF(JNK)	+0.13%
곡물 ETF(DBA)	+0.79%	물가연동채 ETF(TIP)	-0.54%
반도체 ETF(SMH)	+2.50%	Long/short ETF(BTAL)	-0.8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1.19	+0.33%	+3.01%	-4.34%
소재	359.72	+0.14%	+5.62%	+4.35%
산업재	636.44	+0.13%	+4.49%	-0.82%
경기소비재	923.23	+1.05%	+6.34%	-0.75%
필수소비재	599.32	+0.00%	+3.78%	+1.88%
헬스케어	1,053.78	+0.31%	+4.33%	+2.60%
금융	452.62	+0.89%	+4.39%	-0.53%
IT	1,346.78	+0.98%	+8.92%	+0.94%
커뮤니케이션	158.75	-0.14%	+3.67%	-3.40%
유틸리티	300.64	-0.60%	+1.23%	+2.42%
부동산	230.28	-0.30%	+1.86%	+3.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차익실현 매물 출회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1% MSCI 신흥 지수 ETF 는 1.0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601 계약)에도 불구하고 0.40pt 상승한 272.1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3.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4% 상승 했다. 골드만삭스가 아나로그디바이스에 대한 투자의견 상향 조정한 점,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타결 기대 등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한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아나로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한 점은 한국 주식시장에 우호적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무역협상 기대가 높아진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선물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지수가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6 월물과 9 월물 KOSPI200 시장스프레드가 이론스프레드에 근접해 스프래드 갭(이론가격-시장가격)이 -0.02 에 불과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향후 스프레드 갭이 양으로 전환하면 프로그램 매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하락 한 점, 여전히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점, 미 증시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이 장 후반 출회된 점 등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지속

4 월 미국 채용공고는 전월(747.4 만 건) 보다는 감소한 744.9 만 건을 기록 했다. 그러나 예상치인 740 만 건을 상회해 여전히 고용시장의 개선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했다. 한편, 민간 부문 노동자의 이직률은 2.3%로 전월과 같았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산유국 감산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하락 했다. 장 초반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이슈가 해소되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6월 종료되는 감산합의 기간 연장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한편,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이며 산유국이 공급을 늘리면 국제유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공급감소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원유시장 투자심리를 위축 시켰다. .

달러화는 고용지표 개선 및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타결 및 타결 기대가 높아지자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영국의 메이총리 이후 새로운 총리에 노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존슨 전 외무장관이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멕시코 페소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으로 2% 넘게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 및 미국과 멕시코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개최 소식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에 중국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약화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중국 수입 감소는 돼지열병으로 인한 대두 수입 감소 등에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무역분쟁 완화 기대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무역협상 타결 기대로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00%, 철근도 1.2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3.26	-1.35	+0.02	Dollar Index	96.748	+0.21	-0.41
브렌트유	62.29	-1.58	+1.65	EUR/USD	1.1315	-0.17	+0.66
금	1,329.30	-1.25	+0.11	USD/JPY	108.47	+0.26	+0.37
은	14.639	-2.61	-0.69	GBP/USD	1.2688	-0.38	+0.19
알루미늄	1,775.00	+0.62	-0.11	USD/CHF	0.9899	+0.22	-0.26
전기동	5,874.00	+1.29	+0.55	AUD/USD	0.696	-0.59	-0.24
아연	2,476.00	-0.32	+0.32	USD/CAD	1.3268	+0.01	-1.27
옥수수	415.75	0.00	-2.00	USD/BRL	3.8863	+0.14	+0.00
밀	507.50	+0.59	-2.36	USD/CNH	6.9441	-0.00	+0.32
대두	858.50	+0.26	-2.33	USD/KRW	1185.20	+0.32	-0.48
커피	98.60	-2.33	-4.96	USD/KRW NDF1M	1183.25	+0.22	+0.3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145	+6.40	+7.39	스페인	0.602	+5.20	-8.70
한국	1.662	+0.70	-0.70	포르투갈	0.677	+5.90	-7.80
일본	-0.119	+0.10	-2.60	그리스	2.815	+0.70	-4.10
독일	-0.219	+3.80	-1.80	이탈리아	2.357	+0.10	-20.10